

소련 경제의 실상과 진출 방안



임 인 주
KOTRA 무역정보본부장

1. 序

지난 6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소 양국 정상회담은 1904년 이후 단절되었던 한·소 관계를 재개한다는 역사적인 대전환점이라는 의미는 물론 정상간의 회담이 아국의 정치·외교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한·소 련간의 경험관계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라는 생소한 단어가 동구권의 개혁,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뿐만아니라 이제 우리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소련을 재인식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의의나 지나친 기대감으로 냉정함을 잃거나,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또 하나의 시행착오의 우를 범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련진출은 소련의 실태부터 면밀히 파악하여 현실 분석에 바탕을 두고 냉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소련을 보는 시각이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에서 소련진출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타 서방기업과는 달리 소련시장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갖게된 데에는 일부기업들이 선점적인 대소 교섭으로 인한 정보의 차단과 지나친 과대홍보로 무의식중에 현지의 불리한 여건보다는 진출 의욕만이 앞서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그동안 방한했던 소련 고위인사들이 소련경제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일종의 정보 왜곡 현상이 있었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그렇다고 소련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착하여 소련진출을 중단해야 한다든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현실적으로 소련은 우리에게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은 물론 자원수입 시장으로서 소비재의 신시장으로서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감안하여 볼 때 소련시장 진출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련진출은 정치관계 개선이나 공식관계 수립 그 자체가 대소 진출에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기 보다는 이제부터가 진출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할 시점이며, 소련이

왜 한국과의 경협을 시도하는지 하는 배경과 소련 경제의 실상과악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진출 계획을 수립하되, 서방제국의 대소 진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경협방안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며, 특히 '92년부터 본격화될 EC 시장의 단일화 움직임 및 동·서독의 경제통합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서방국가와의 공동보조를 통한 종합적인 진출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 소련경제의 실상

가. 개 황

최근의 소련경제는 개혁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일시에 분출하는 과도기적인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에 시장경제 제도의 접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소련의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왔다는 것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소비재 공급부족, 인플레이, 노사문제 및 민족문제 등 거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경제 문제로 인하여 경제개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직면해 있다.

소비재 공급부족 현상은 개혁에 따른 인플레이와 함께 특정계층을 제외한 국민 모두에게 생활수준의 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우기나 불평등한 분배 체계로 인해 불만족이 사회적 긴장과 파업, 민족문제까지 확산 추세에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소련은 소비재 부족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군수산업의 민수화'를 추진하여 '89년 약 400개의 방산업체 및 200개의 연구소를 소비재 생산 부문으로 전환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며, '89년 하반기 중에는 소비재 긴급 수입계획을 추진하여 약 20억 루블(미\$ 38억 상당) 규모의 소비재를 서방으로부터 수입을 추진 하였으나, 폭발적인 잠재수요만 유발하여 인플레이만 가중시켰으며 신규로 대외교역이 허용된 무역 등록업체들의 무분별한 수입, 외환 획득원인 원유 수출감소 등으로 대금결제지연, 서방으로부터 차입만 확대되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가 부진한 이유로는,

첫째는, 경제정책의 오진과 체제 변화에 따른 부작용

둘째는, 과거에 중앙계획체제에 사용해 왔던 "행정규제"를 분권화 체제에 적합하도록 "경제적 수단"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지연.

셋째는, 원·부자재를 개별기업이 조달해야하나 원·부자재 시장이 육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넷째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적은 고가품 생산에 치중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나. 소련경제의 전망

소련은 경제개혁 추진, 즉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경제적 효과보다는 추진에 따른 부작용만 유발,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자 비상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장·단기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조치를 보면, '89. 3월 각료회의 산하 위원회는 투자, 방위, 적자기업에 대해 보조금 등 재정지출 축소를 권고한 바 있으며, '89. 9월에 채택된 '90년도 예산안에서 동 위원회의 취지를 반영하여 중공업 투자재원을 소비재 부문 투자로 전환했고, '89. 12월에는 인민대의원 대회에서 '92년도에 시행할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승인한 바 있다.

'토지와 생산수단을 독점한다'는 마스-레닌주의를 근본부터 뒤 흔드는 토지사용 및 재산에 관한 일련의 조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경제개혁 정책과 안정화 계획을 과감히 추진하고는 있지만 가까운 시일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가 급속히 황폐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데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하나만 터져도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생산재 및 소비재의 혼돈을 야기할 가능성이 지대하다.

또한 경제개혁에 관건이 될 서방으로부터의 자본유입, 합작유치 등도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치열한 논쟁으로 합작투자 개정안 채택이 지연되

고있어 7월초 예정되어있는 제 28차 당대회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위상과 보수파의 도전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르바초프 등 온건 개혁파의 입지가 강화된다면 경제는 급진 개혁쪽으로 선회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경제사정 악화가 파업과 민족분규 등 개혁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이 부각되거나 보수파의 입장이 강화된다면 소련경제는 오히려 더욱 강력한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한·소 경제협력 현황

가. 상품교역현황

1) 연도별 교역현황

한·소련간 상품교역은 '89년에는 무역사 무소개설, 영사관계 합의 등 교역여건의 개선과 소련의 개혁 확대에 따른 소비재 수요의 증가로 수출 2억 800만불, 수입 3억 9,200만불을 기록 교역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6억불에 달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는 높은 교역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90년 1/4 분기중에는 대소 수입보다는 소비재 수출이 급증하여 무역흑자로 반전되었으며, '90년 중 양국 교역무역규모는 미불 11억(수출 5억불, 수입 6억불)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2~3년 내 중국에 이어 제 5위의 교역대상국으로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미\$백만)

연도	교역량	수출	수입	수지
'81	30.7	20.8	9.9	10.8
'86	117.7	49.9	67.8	-17.9
'87	200.3	67.2	133.1	-65.9
'88	289.9	111.6	178.3	-66.7
'89	599.4	207.7	391.7	-184.0
'90.1-3	174.1	101.4	72.7	28.7

*자료 : '81-'88수출은 상공부 실사치, 기타 수출입은 관세청 통계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2) 품목별 수출동향

소련의 생필품 긴급수입으로 '89 하반기 이후 비누, 치약, 신발 등 생필품 및 소비재 부문이 대소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주종 수출 품목인 섬유류와 VCR, CPT, 오디오 테이프 등 가전제품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철강판 등 철강류의 수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퍼스날컴퓨터, 승용차 등의 수출이 시작되는 등 수출상품 구조가 다양화하고 있으며, '89년말 이후 소 선박 수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89년 이후 신조선 수주계약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 '89 선박수리 실적은 4,000만불(44척)이고, '90 예상은 5,000만불임.
- '90.2월 현재 신조선 수주실적 : 13억 2,000만불(26척)임.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미\$백만)

품목	'88	'89	'90.1-3
비누 및 치약	-	13.1	13.7
신발	-	12.5	4.7
섬유류	28.0	53.4	25.4
철강	15.1	36.3	5.7
기계	0	15.2	7.1
전기·전자	39.3	*24.6	35.8
선박(수리)	0.2	40.3	6.6
기타	29.0	12.3	10.0
계	111.0	207.7	101.4

※주 : 간접수출을 포함한 '89년의 전자제품 수출은 5,000만불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

3) 품목별 수입동향

주요 수입품목은 수산물, 농산물, 석탄, 원목 등 1차 산품과 선철, 비철금속 제품 등이다. 자원관련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선철을 비롯한 철강, 금속제품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소련산 농축 우라늄 도입결정이 이루어지고

석유가 수입되는 등 수입자원이 다양화 될 전망이다.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미\$백만)

품 목	'88	'89	'90.1-3
수 산 물	31.2	63.9	15.1
농 산 물	15.9	35.0	2.5
석 탄	48.1	54.6	6.8
목재 및 펄프	14.8	21.9	2.6
철강 및 금속	39.6	143.4	22.8
기 계	2.2	5.4	0.3
기 타	26.5	67.5	22.6
계	178.3	391.7	72.7

나. 합작투자 진출 현황

소련의 적극적인 합작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최근 합작투자 제의가 급증하고, 국내 기업의 대소 투자진출 사례가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소련내 합작투자 개정안 채택지연, 합작투자에 따른 제반 문제점 등으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소 합작투자 추진건은 현대의 연해주 산림개발 등 총 20여건이 추진되고있으나, 성사된 것은 (주)진도의 모피제품 외환판매점 합작투자 1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업체가 진출하고 있는 분야는 생필품 제조공장, 산림 및 석탄 등 자원개발 및 호텔 건설분야 등에 집중되어있다.

대소 합작투자 추진현황

업 체 명	사 업 내 용	비 고
진 도	모피 매장 운영 및 제조	'89.10.2일 개장
현 대	연해주 스페틀라야 지역 산림개발 프로젝트,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지역 석탄개발 프로젝트, 나훗카 비누 합작공장 설립,	

업 체 명	사 업 내 용	비 고
	나훗카 퍼스날 컴퓨터 합작공장 건설, 토볼스크 석유화학단지 건설 참여, 야크츠 지역 가스개발	
삼 성	모스크바 Sport 호텔 개축 및 운영, 원피 가공공장 설립	
대 우	모스크바 호텔 프로젝트, 극동지역 호텔 및 주택건설 프로젝트,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조립공장	
럭키금성	컬러TV 생산공장합작투자 1회용 주사기 생산공장 레난그라드의 호텔 및 무역센터 건설	
삼환기업	사할린 목재가공 프로젝트	

4. 대소련 진출상의 문제점 및 진출방안

가. 대소련 진출상의 문제점

최근 일각에서는 소련시장을 '70년대 '중동붐'에 비견하는 등 지나친 기대감에 들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견 보기에 3억이라는 거대한 인구에 무한한 자원 등 시장잠재력을 평가할 시에는 중동시장에 버금가는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공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동 붐'은 Oil Money라는 거대한 원동력이 뒷받침을 해주는 가시화 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 소련은 자본을 선투입하여 시장수요개발 등을 통해 시장잠재력을 활용하거나 혹은 실패할 시에는 투자자본 회수자체도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소 진출상의 주요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소련이 추진하고있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성패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점으로 개혁 자체가 상층부에만 전파되고 있을뿐, 실제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하부구조에는 공감

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가기획 System이 국가의 원동력으로 페레스트로이카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둘째는 특히 소련의 아키레스근이라 평가되고 있는 소련내의 소수 민족분규, 지방공화국의 연방탈퇴 및 독립선언 사태는 소련의 개혁을 근본부터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 진출기업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투자환경의 불안은 지난 '89년 서방기업의 대소련 합작투자 진출건수가 1,200여건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으나, 이중 실제적으로 운용되고있는 건수는 10%에도 못 미치며, 그나마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합작기업은 50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는 소련내부의 합작투자 관련법규의 미비를 들 수 있는데 외국 기업의 진출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지분문제, 부동산 취득, 과실송금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보수와 개혁파간의 갈등, Gosplan 등 합작투자와 관련한 이해상충 기관과의 의견조정이 어려워 지연되고 있다는 점

넷째는 합작투자 및 투자진출에 있어서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제도적 보장장치도 선행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련내부의 투자환경 미성숙으로 합작투자에 대한 채산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헝가리의 예를 보더라도 양국간 국교수립으로 투자보장협정 등 투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어도 경제성을 고려하여 우리기업의 진출은 미미한 수준에 있다는 점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소련은 유럽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우랄 산맥 서부쪽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으나, 우리기업의 진출을 요구하는 시베리아 지역은 사회간접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투자진출시 추가적인 개발비 부담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다섯째는 투자진출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점으로 현금출자시 루블화의 평가문제, 부동산 투자시 부동산에 대한 소련측의 의도적인 고평가, 합작투자에 대한 소련측의 일괄성 결여, 하부관리

들의 소극적인 자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련내부의 문제점 이외에도 소련과의 관계개선 및 직접교역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이 우리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으로, 실례로 최근의 대금지불 지연사태도 간접교역에 의존시는 이러한 위험부담이 제3국 중계상으로 전가될 수 있지만, 이제는 거래위험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대소련 진출방안

- 1.) 대소 진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진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없으므로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지원 방향은 자금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국가간 투자보장협정, 수출보험지원강화 등 대소 거래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2.)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사전 방지
특히 대소련 진출과 관련하여 국내업체간 과열된 기업홍보, 선점욕에 의한 실속 없는 과당경쟁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대소련 진출을 혼란만 가중시키게 됨은 물론 타 부문까지 과급효과를 미치게 됨으로 정부가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초등단계에서 과열현상을 예방하는 내부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 3.) 소비재 수출 등 상품교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90년 하반기부터 소련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 되면 소비재 부문의 특수현상이 예상되며, 이에 부응하여 소비재 수출 등 상품교역에 우선 두되, 점진적으로 소비재 분야의 합작투자로부터 진출분야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4.) 투자진출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투자진출은 당분간은 제도상으로 유리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진출 하여야 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훗트가 특구'에 진출 방안을 모색하되, 제조업종은 내수보다는 수출산업위주로 진출하는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볼 때 중국, 북한의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하산특구"진출 등도 진출지역으로는 유망한 지역이다.

- 5) 자원개발 등 대규모 투자는 서방국과 공동진출
 산림자원, 천연가스, 석탄, 광산물 등 자원개발 분야의 진출은 단독 투자보다는 서방국가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진출하되, 진출시에는 서방국은 기술분야, 아국은 하청분야로 전략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전

에 충분한 체산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6) 호텔건설, 유통업 진출 등 외환 획득가능 분야 부터 진출 필요

소련의 경우 아직까지는 서서비스 부문이 낙후된 실정으로 호텔, 유통업분야 등 서서비스 분야의 진출이 유망하며, 특히 동분야는 외환판매가 가능한 분야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루블화 판매로 전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소련 투자업체간에 외환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랑스식 "투자기업간 자유환전지대"설치문제, 또는 대소 교역업체간 혹은 은행간 협정을 통한 청산계정 설치 등도 고려할 수 있겠다.

컴퓨터 약어해설

IAR : Instruction Address Register(명령어 주소 레지스터)

다음에 수행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

IBG : InterBlock Gap(블럭간 갭)

마그네틱 테이프나 디스크상에서 하나의 레코드 블럭 끝과 다음번 레코드 블럭 시작점간의 거리.

IBI : Intergovernmental Breau of Informatics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스코를 구성하고 있는 기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정보교환과 과학탐구, 컴퓨터 교육, 훈련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BI의 가장 큰 목적은 특히 개발도상국 안에서 정보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IBS : Intelsat Business Service(국제간 고속 디지털 전용회선 서비스)

IC : Integrated Circuit(집적회로)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콘덴서와 같은 전기부품을 작은 실리콘 반도체 결정인 칩 속에서 분리할 수 없도록 결합하여 전자회로를 구성한 것. 크기가 작으면서도 동작속도가 빠르며 신뢰성이 크고, 전력소비와 외부배선이 적으며, 값이 싼 것이 장점이다.

ICA : Integrated Communications Adaptor
 연산기에 다중통신선을 연결할 수 있는 집적 통신 접합기.

ICC : Information Culoture Center(정보문화센터)

체신부에 의해 설립된 공익재단. 교육과정은 크게 계몽과정, 양성과정, 전문과정, 위탁과정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ICC : International Computation Center(국제 컴퓨터센터)

UNESCO가 후원하는 컴퓨터센터. 로마에 있으며, 회원국에게 컴퓨터서비스를 제공한다.